해외연수보고서

연수기간 : 2013.1.1~12.31
연수장소 : 美 델라웨어 대학
환경정책연구소
연 수 자 : 산업경제연구부
연구위원 신동호

충남발전연구원
Chungnam Development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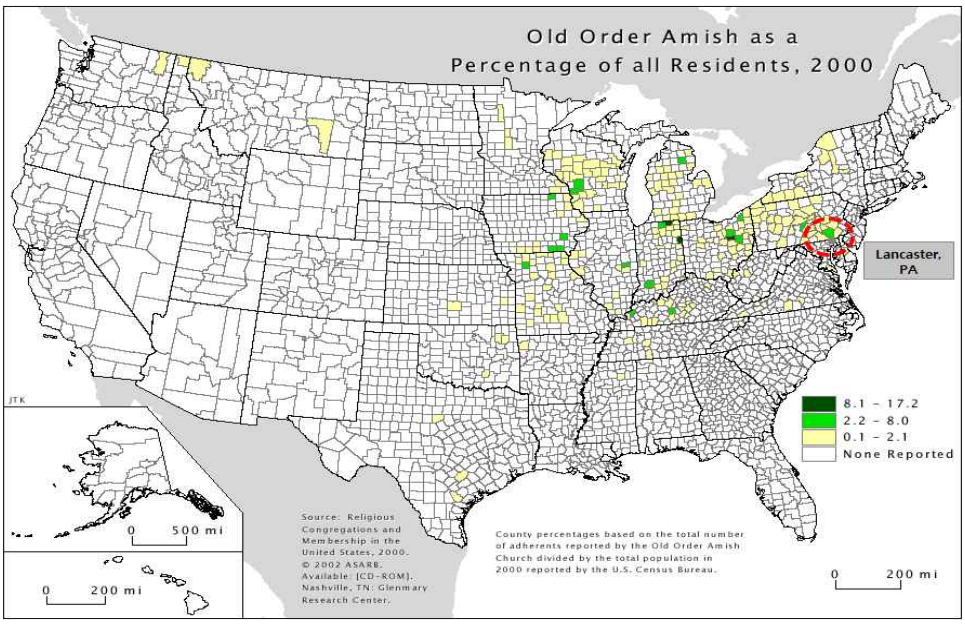
아미쉬(Amish) 공동체의 '자발적 간소함'

신 동 호 | 충남발전연구원 산업경제부 연구위원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현대 물질문명의 발달과 궤를 같이하며 현재에 이르는 동안 유사 이래 인류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왔다. 반면, 모든 자원은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었다. 이러한 성장과정에서 자연이라는 자본은 지속적으로 고갈되어 왔고 환경오염의 수반은 필연적 결과였다. 더욱이 물질 만능주의에 따른 인간성의 피폐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이 아닌 사회적·경제적·환경적인 제 측면에서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최근 들어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대안사회 혹은 생태사회 개념이다. 관련하여 슈마허(E. F. Schumacher)는 그의 저서 '작은 것이 아름답다(small is beautiful)'를 발간하면서 이러한 개념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 인물이다. 그는 "인간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자그마한 경제규모를 유지할 때 비로소 쾌적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운 이러한 유형의 사회가 아프리카나 남미의 오지도 아닌 바로 자본주의 표상이라는 미국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아미쉬(amish) 공동체가 바로 그것이다. 본고는 2013년 해외교육연수를 위해 美 델라웨워州에 머물던 당시 간간히 들리던 인근 펜실베니아州 랭카스터 지역의 아미쉬 공동체에 대한 기록을 정리·기술한 것이다.

1737년 독일과 스위스 등지에서 주로 살던 아미쉬들은 16세기 유럽의 종교개혁 운동과정에서 생겨난 재세례파(anabaptist)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美 펜실베니아州 랭카스터(lancaster)지역으로 처음 이주하였으며 현재는 아이오와州를 포함한 20여개 州에 정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펜실베니아州 엘리자베스타운 대학교의 영센터에서 주관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0년 현재, 미국 내 아미쉬 전체 인구는 약

249,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아미쉬 최대 거주지는 그간 알려진 오하이오州가 아닌 펜실베니아州로 밝혀졌다.[1)]



자료: http://www.gunis.co.kr/.

이들 아미쉬는 매우 엄격한 종교관행을 지켜오는 탓에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과거 500년 전의 라이프 스타일(life style)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과학의 발달한 현재에도 이러한 생활방식의 유지가 가능한 이유는 아미쉬 특유의 규율인 Ordnung이 공동체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Ordnung에는 지켜야할 규정으로 ①세상으로부터의 분리, ②평화주의자, ③드레스 코드가 있고 금지사항으로는 ①외부인과의 결혼, ②컴퓨터, 휴대폰, 자동차, TV, 라디오, 전화, 보석의 소유, ③정부의 의료 및 사회보험 가입, ④전력회사의 전기사용, ⑤군입대가 바로 그것이다. 아미쉬들은 이처럼 공동체의 규율에 따라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공동체의 생활계율과 규칙을 엄격히 지키는데 이는 '자발적 간소함'의 생활 그 자체이다. 이를 테면 자동차, 전화,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와 같은 현대문명의 편의를 가능한 한 사용치 않

1) 연구결과, 아미쉬들이 새로운 정착지를 정함에 있어 농사의 질과 가격, 농사 이외의 다른 구직 가능성, 전원생활의 적합성, 그리고 인근 아미쉬 공동체와의 거리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주의 원인으로는 인근 도시의 개발확산, 농지가격 상승, 생활공간의 침해, 주정부와의 마찰, 고용환경 등이 주된 것으로 밝혀졌다.

으며 독특한 옷차림을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아미쉬들은 단추나 지퍼보다는 훅과 아이어가 달린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파란색의 옷만을 입어 'hook and eyers' 혹은 'plain people'이라고도 불리 운다.

☞ 아미쉬들이 마차나 체인 없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유

자료:http://www.pbase.com/.

아미쉬들은 교통수단으로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는다. 아미쉬 마을이 소재하고 있는 랭카스터 지역을 여행하다보면 마차나 'amish scooter'라 불리 우는 자전거를 흔히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자전거에 체인이 없어 빨리 그리고 멀리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내리막길을 제외한 평지에서는 발로 지면을 지쳐 동력을 얻고 오르막길에서는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올라가는 진풍경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사서 고생하는 이유는 체인 달린 자전거를 타게 되면 멀리 갈 수 있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벗어나기가 용이해지고 그럴수록 세상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어 아미쉬 공동체로부터의 이탈을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순진한 발상이 통할까 싶기도 한데 아마도 자동차가 보편화되기 이전에는 나름의 효과가 있었을 듯 싶다.

물론 그들도 청소년들에게 성인세례를 받기 이전에는 일정기간 공동체 밖 일반사회의 모든 삶을 직접경험해 볼 수 있는 '이곳 저곳 돌아다니는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럼스린가(rumspringa)'를 통해 일생을 통틀어 단 한번인 '일탈의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여담이지만 아미쉬들은 성인이 될 시점(16세)에 공동체에 '남을지 떠날지'를 본인이 결정하는데 약 90%정도의 청소년들이 공동체에 그대로 남는다고 한다.

다만 아미쉬들은 물질문명의 수용정도에 따라 보수(old order amish)와 진보(new order amish)로 구분되는데 이를 테면, 보수 아미쉬들은 쇠 바퀴에 천으로 된 문을 선호하는 반면 진보 아미쉬들은 고무바퀴에 여닫는 문을 선호한다. 최근에는 펜실베니아주가 마차간 추돌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대책으로 불빛에 반사되는 삼각표지 부착을 의무화함에 따라 양측이 이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하였다.

아마쉬 가정의 전경

아미쉬 규율(ordnung)

보수 아마쉬 마차

진보 아미쉬 마차

자료:http://www.pbase.com/.

이는 종교가 공동체의 생활양식 전반을 지배하는 것으로 '자발적 간소함'이라는 생활방식이 경제활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아미쉬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는 농사일과 목수일에 그리고 여자들은 가사일과 퀼트 만들기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시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집약적인 농·축산업을 통해 자급자족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일을 농기계가 아닌 말(馬)과 사람의 손으로 한다.[2] 이런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도 아미쉬들이 자급자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3] 실제로 그들은 농사와 일상생활에서 풍력,

2) 농기구는 대장간에서 손으로 제작하며 농사와 교통수단으로 말과 마차를 이용하나 승용차나 화물차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공동체내에서 지정된 사람만이 소유할 수 있어 문명의 이기(利器)를 최소화하고 있다.

3) 적정기술이란 기술혁신에 의한 실업의 발생이나 공해, 자원고갈 등 지금까지의 기술개발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주요한 특징은 해당지역에서 산출된 원재료를 써서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제품을 만들되 노동집약적이며 지역환경(자연조건, 사회제도)에 적합한 기술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경제학자인 슈마하의 저서「Small is

수력, 마력, 태양열, 그리고 적정 농업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더 높은 생산성을 보이기도 하는데 한 대학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 아미쉬 낙농장에서는 다른 일반 농장보다 에너지를 평균적으로 83%나 덜 쓰고도 단위면적 당 더 많은 우유를 생산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물론 아미쉬들은 자급자족하고 남은 농·축산물들은 인근 도시로 유통되거나 자신들이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에 부스를 차려 직접 판매하기도 하는데 맛과 질이 좋아 인기가 많은 편이다. 또한 일부 아미쉬들은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퀼트와 공예품, 그리고 가구 등을 만드는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그와 관련한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다.[4)]

퀼트제품

파머스 마켓

수공품

가구제품

자료: http://www.padutchcountry.com/.

Beautiful」이 단초가 되어 세상에 주목을 받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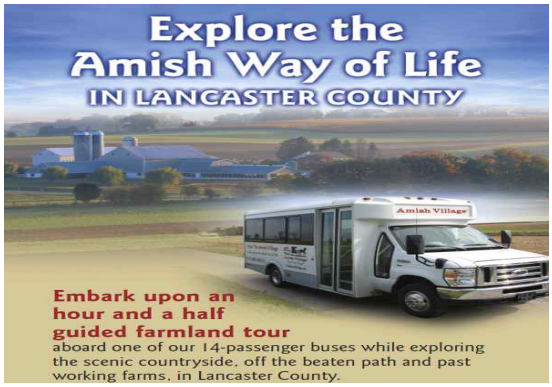
4) 랭카스터 카운티(lancaster county)는 아미쉬를 배경으로 해리슨 포드가 주연한 영화 'Witness'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관광붐을 조성하고 있으나 정작 보수 아미쉬(old order amish)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아미쉬 가정의 아이들은 평균적으로 7~8세가 되면 농사일이나 장사 등 집안일을 거들기 시작한다. 실제로 아미쉬 마을로 여행을 다니면서 어린 아미쉬 아이들이 같은 또래의 관광객들을 조랑말 마차에 태워 마을을 투어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투어는 아미쉬 관광의 일부로 아미쉬의 삶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하우스 투어(house tour)와 팜 투어(farm tour) 같은 다양한 농촌체험 프로그램이나 그들이 사용하던 농기구나 생활물품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 그리고 다양한 오락적 요소 등과 연계되어 있다.

마차투어

퀼트 박물관

팜 투어



아미쉬 빌리지 투어

자료: 본인촬영 및 http://www.padutchcountry.com/.

아미쉬 공동체 내 경제적 거래 관점에서 특이할만한 점은 바로 머드세일(mud sales)이라 불리 우는 시장거래이다. 질척한 땅바닥 위에서 場이 선다하여 머드세일로 불리는데 미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야드세일(yard sale)과 유사하나 규모나 거래품목이 훨씬 크고 다양하다.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5일장을 보는 듯한 느낌이나 대부분의 거래가 경매(auction)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과 상당한 중고제품들이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추측컨데 과거에는 주로 아미쉬들간에 다양한 생필잡화를 교환하는 형태로 상거래가 이루어졌을 것인데 현재는 인근 주민과 관광객들까지 불러 모으고 있다.[5)]

머드세일 전경

경매과정

경매물건

경매소 전경

일반잡화

경매소 내 공지사항

자료: 본인촬영.

5) 2014년 랭카스터 지역의 머드세일(mud sale)은 총 18회가 열릴 예정이며 주로 봄과 가을에 집중되어있다. 최근에는 지역민간소방회사(local fire company)에서 場이 선다.

필자가 가본 머드세일場에서는 퀼트제품, 골동품, 잡화, 마차, 가구, 화훼 그리고 다양한 농기구와 수공예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었다. 경매는 아미쉬들이 주관하는데 모든 경매물건에는 숫자로 적힌 번호가 매겨져 있어 각 물건마다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에게 낙찰되고 낙찰인이 경매소에 들러 대금을 지불하면 해당 물건을 인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경매물건에 대해서는 場이 파하기 전에 대금을 지불해야만 하는데 경매소 내에는 'items must be paid before removed from sale grounds'라는 문구가 공지되어 있다.

이상에서 열거된 아미쉬들의 경제활동을 생산 → 분배 → 지출이라는 경제순환의 관점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은 독특한 점이 발견된다. 구체적으로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으로부터 창출된 부가가치가 분배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되는 것이 거의 없이 지출로 이어지며 이것이 재차 생산활동으로 환류(feed back)되는 일련의 과정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순환양태로 보면 아미쉬 공동체를 자급자족형태의 폐쇄형 경제(closed economy)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아미쉬들은 자급자족이 아닌 외부에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규모의 축산농가를 경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한 다양한 수공업과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실은 개방형 경제(open economy)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체 내 내부자원과 전통기술을 충분히 활용함으로써 생업에 종사하는 것이 가능하며 검소하고 금욕적인 아미쉬만의 생활양식 탓에 불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부수요에 대응한 생산활동은 영위하되 외부시장과 자본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 자연스레 지역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충남도는 민선 5기 들어 지역발전의 목표가 단순한 생산확대에 따른 경제성장만이 아닌 환경과 삶의 질 향상 등으로 다원화되어야할 필요성을 자각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미쉬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작지 않다고 할 수 있다.